

우리나라 에이즈 더이상 강 건너 불 아니다

송영주 / 한국일보 생활과학부 기자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 수는 환자 25명을 포함, 3백86명이다. 실제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만 1천 명이 넘는 국가가 수두룩해 우리나라는 아직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높으나, 최근 서울을 비롯한 서울 외곽지역의 매춘업소 여성종사자들에게서 속속 발생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 사례는 이제 국내도 에이즈를 먼 나라 이야기로만 방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보사부는 이들 매춘업소 여성종사자들이 다행히 과거 외국인과 동거한 경력이 있어 이들을 통해 에이즈가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환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태국의 경우 에이즈 왕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시기가 바로 매춘업소 여성종사자들에게 에이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점에서 최근 국내 에

이즈 발생양상이 하나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리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월초 내한했던 태국 적십자사 프라판 파누팍 에이즈 프로그램 국장은 태국의 에이즈 역사를 5개의 파도로 구분했다.

첫번째 파도는 첫 에이즈 환자가 보고됐던 '84년부터 '87년까지로 이 때까지만 해도 감염자의 대부분은 남성 동성연애자와 양성연애자, 그리고 감염된 양성연애자의 섹스파트너들로서 아주 느린 속도로 에이즈 바이러스가 유행했다는 것. 매춘업소 여성종사자로서 감염된 사람은 당시엔 한 명도 없었다.

두 번째 파도는 '88년 태국 방콕 내의 혈관 마약사용자들 사이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유행률이 6개월 동안 1%에서 32%로 증가했다.

세 번째 파도는 '89년 태국 북부 지방의 매춘업소 여성종사자들에게 처음 에이즈가 나타나면서부터

로 이때부터 에이즈가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89년 12월 말 현재 태국 매춘업소 여성종사자의 30%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보고이다.

네 번째 파도는 '90년 매춘업소의 손님이었던 남성들에게 에이즈가 나타나면서부터이다. 『현재 태국 내 병원 남자환자 병상의 50% 이상을 에이즈 환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파누팍 씨는 말한다.

다섯 번째 파도는 '91년 가정주부가 난잡한 남편들의 희생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94년 6월 현재 태국내 병원에 다니고 있는 전체 임산부의 1.6%가 에이즈에 감염되었으며 감염산모의 약 30%가 아기에게 에이즈를 전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태국은 '94년 8월말까지 1만1천명의 에이즈 환자를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그 수의 3~10배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에이즈 감염자는 무려 1백만 명 정도. 이것은 일단 매춘업소 여성종사자들에게 에이즈가 발생하면 일반 대중들에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에이즈가 전파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좋은 교훈이라 하겠다.

한편 태국 다음으로 에이즈 환자가 많은 일본의 최근 에이즈 발생양상도 또 하나의 교훈을 안겨 준다.

일본의 에이즈 환자는 '94년 6월 현재 7백64명, 이 중 12%가 외국인

매춘업소 여성종사자들에게 에이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진다는 이웃 나라들의 예를 교훈삼아 에이즈는 외국의 병이며 우리와는 관계없다는 시각에 중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다.

이다. 에이즈 감염자는 3천75명.

에이즈 환자의 59%는 오염된 혈액제제 사용으로 감염된 혈우병 환자가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면 동성간 혹은 이성간 성접촉에 의한 경우가 반씩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선 이성간,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 감염자 수가 부쩍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성간 성접촉(6백46명)이 동성간 성접촉(2백40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에이즈 감염자 수를 기록, 최근 일본에서의 에이즈 감염의 주요 전파경로는 이성간의 성접촉임을 알 수 있다.

젊은 여성들이 국내보다 국외에서 감염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독신여성들이 해외 단체여행중 현지에서 매춘업소 남성종사자들을 만나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에이즈는 외국의 병이며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시각은 이제 중지부를 찍어야 할 때인 것 같다. †